전호근 <맹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린다>

8강 누가 천하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가

◆ 1교시 임금은 임금다워야

▲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임금을 바꿔라

오늘 다섯 번째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왕도정치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혁명론입니다. 누가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이 왕도론이라고 그랬지요? 덕이 훌륭한 왕자가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맹자의 대답이었는데, 그게 이상적인 경우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물죠. 맹자가 추구했던 왕도정치가 맹자 이전 시대에는, 맹자의 말을 빌리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요순의 정치, 또 탕무의 정치, 탕왕이나 무왕의 정치, 특히 문왕의 정치, 그게 왕도정치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 이후에 왕도정치라고 평가받을 만한 정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세의 유학자들 중에서 맹자 이후에 명군으로 꼽는 사람들이 한나라 문제라든지, 당나라 태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꼽기는 하지만, 그들을 두고 왕도정치를 구현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왕도정치를 구현했던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왕도정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현실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왕도주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왕도주의를 맹자에게 포기하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왕도주의가 구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맹자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그런 고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골라서 한번 읽어보죠.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1번이 있죠. 제목이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딴 이야기를 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왜 딴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살펴보죠. 거기에 번역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말했다. 왕의 신하 중에서 자신의 처자식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제나라죠, 제나라에서 자신의 처자식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초나라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초나라는 저 남쪽, 제나라에서 아주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초나라에 갔다 돌아와보니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처자식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말했다. 친구를 버려야겠죠. 친구한테 처자식을 부탁했는데, 갔다와보니 자신의 처자식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친구를 버려야겠죠. 이 말이 당연한 겁니다, 절교죠. 다시 묻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옥관이 옥리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관이라 하는 것은 옥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옥리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이고요.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을 그 우두머리가 제대로 다스리질 못해요. 제대로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두게 해야겠죠, 당연히. 왕이 말했다. 그만두게 해야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제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나라의 선왕을 두고 직접 얘기한 거죠. 제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

www.artnstudy.com

고 원문이, 王顧左右而言他, 왕이 좌우를, 顧 - 돌아보면서, 言他 - 다른 말을 꺼냈다, 다른 이야기를 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의 대답은 임금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지만 어쨌든 맹자의 대답은 그겁니다.

▲ 신하가 임금을 쫓아내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윤(伊尹)같은 사람은 탕임금을 도와서, 이번 시간에 탕임금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무왕도 자주 나오고요. 탕과 무왕은 각각 이전의 '하나라'라는 그 고대 국가를 멸망시키고, 새로 상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걸이었죠. 걸은 천자였고, 탕임금은 당연히 걸의 신하였습니다. 신하였던 탕이, 탕이 임금되기 전이니까요, 탕이 걸을 죽이고, 스스로 탕나라를 세우고 탕나라의 천자가 된 겁니다. 무왕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그 탕임금이 세운 상나라, 나중에는 '은나라'라고 호칭했는데요, 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입니다. 주라는 임금이, 이른바 폭군이고 무도였기 때문에 무왕이 주를 정벌해서 죽이고 새로 이제 주라는, 周(두루 주), 주나라를 이제 세운 것으로 서경을 비롯한 고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맹자는 이제 두 사람을, 탕과 무를 혁명가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이 탕임금을 보좌했던 신하가 伊尹입니다. 이 伊尹이 탕임금의 아들이었던 태갑, 태갑이 탕임금이 만들어놓았던 훌륭한 제도를 전복시켰다고 해요. 훌륭한 제도를 따르지 않고 무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伊尹이 태갑을 쫓아냅니다. 신하가 임금을 쫓아내는거죠. 탕임금은 이 걸왕의 신하로 임금을 죽여서 새로 나라를 세웠고, 伊尹은 태갑을 임금 자리,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태갑이 뉘우치니까 다시 복귀시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伊尹이 그랬고, 그리고 한나라 때 각광이라는 신하가 임금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이를테면 한나라 후한의 마지막 임금이 헌제죠,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요, 헌제를 누가 폐위시킵니까? 동탁이 폐위시켜버리죠? 동탁이 이 논리를 적용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伊尹도 임금을 임금 자리에서 쫓아낸 적이 있고, 또 각광도 그런 적이 있다. 그러니 나도 못 할 게 없다며 헌제를 쫓아내버리죠.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하의 권력이 실제로 잘못된 임금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동탁의 경우에는 잘못된 임금을 내쫓았다기보다는 찬탈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반드시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잘못되었을 때 신하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이윤이나 각광, 동탁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임금을 세워놨는데 임금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럼 바꿔버리면 되는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헌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일들을 아마 최근 우리나라처럼 빈번하게 겪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마 드물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바쁜 나라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들이, 헌법을 넘어서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그런 일들이 그만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변화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꼭 나쁘다는

www.artnstudy.com

의미보다는, 기존의 헌법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구조가 이 사회구조의 팽창이나 변화를 ,변화되는 양상을 완전히 수용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늘 판단을 해야 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났다고 해서 계속 그것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뀌면서 계속 새롭게 판단을 하고 나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만큼 변화가 심한 상황인데, 그건 뭐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이 현대사회에서는 있지요. 왜냐하면 권력자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분립은 돼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면, 이제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이쪽의 권력보다 상대적으로 사법의 권력이 그렇게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만, 어쨌든 형식상은 분리가 되어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절대권력을, 절대권력이 아니죠, 이미 행정부의 수장이라든지 입법부의 수장이라든지 또는 사법부의 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전혀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혹 신하의 권력이 임금의 권력보다 더 강한, 탕임금이 죽고 나니까 그저 이윤이 일인자가 된 겁니다, 실제의 권력구도에서는요. 그리고 동탁이라는 자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삼국지라는 소설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 갈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가장 기민하게 한나라 조정이 어지러워 졌을 때 가장 상황판단이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였던 게 동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평가가 거의 짐승수준으로 내려져 있는데, 아마 동탁이 무도하고, '찬탈'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쁜 자로 몰아세운다면 어찌 동탁만 그렇겠습니까.

삼국지 주인공 중에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유비는 피할 수 있을까요? 유비도 가는 데마다 배신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 배신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비도 배신자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탁 밑에 있었잖아요, 유비도. 아, 동탁이 아니라, 동탁 밑에 있던 여포 밑에 유비가 있었죠. 의탁을 했죠. 그런데 버렸죠, 여포를. 원소 밑에도 한동안 있었고, 도겸 밑에도 한동안 있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비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 충성스러웠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스스로 황제가 되니까 그것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동탁이나 여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것은 그들이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어떤 중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물든 기존의 삼국연의(三國演義) 소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뭐 그건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탁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임금이 맘에 안 드니까 마음대로 막 바꿨어요. 바꿨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해군 때요,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문제가 책문이죠. 그니까, 책이라고 하는게 임금이 내리는 글입니다. 그 글을 내려서 신하들에게 묻는 게 책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신하들이 책문에 대답하는 게 대책이죠.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한나라 무제가 동중서라는, 동중서에게만 내린 게 아니죠, 한나라 무제가 천인대책, 천인책을 내렸죠.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는 책문을 내립니다. 중국 전역에 내리니까 거기에 응시해

www.artnstudy.com

서 수많은 답안지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동중서의 그 이른바 천인대책, 이 대책이 가장 훌륭하다고 선발이 돼서 동중서가 이제 조정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임금이 그런 문제를 내면 문제에 대한 답안을 내는 게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조선시대의 광해군 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임금의 시무책(時務策), 지금 현재의 국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인가, 이런 내용의 책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책문에 대답하는 대책을 올렸는데, 그 대책의 내용이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임금 당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당신이 가장 제일 큰 문제다, 당신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뭐 그걸 가지고 보통 목숨을 걸고 간했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간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임금의 권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권이 약화되어서 신하들의 권력이 왕이 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그 정당한 권력 행사 자체를 방해하고 왕을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권력 논리죠. 힘이 있으면 못 할 게 없으니까요, 어차피.

▲ 정명론(正名論)과 혁명론(命論論)의 사이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 이전에 다른 차원의 이런 식의 권력구도가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맹자의 '혁명론'입니다. '혁명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요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많은 권력이 있을 때나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인습적으로 볼 때는 절대 복종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군주에게 신하가 복종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것을 맹자가 혁명론을 제기하면서 군주의 역할이 군주답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그런 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자의 '正名論'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정명론을 한 번 살펴보죠. 1-1을 보시면 이제 正名論과 命論論의 사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 정명론 또는 名分論이죠. 正名이라고 하는 명이 名分이죠, 명분이라고 할 때 명은 이를테면 군주라든지, 신하라든지,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제라든지 하는 그런 사회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명칭이 어차피 하나하나의 글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名이 명자의 글자의 뜻으로도 쓰여요. 이런 특수한 사정을 알지 못하면 공자의 命論論 또는 正名論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공허한 관념으로 치우치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正名論, 名分論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에 보면 齊景公, 제나라 경공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뭘 묻느냐면, 문정어공자(問政於孔子),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는 내용이 있는데, 공자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공자 대왈(孔子 對曰)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孔子 對曰,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문정(問政),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齊景公 - 강대국 제나라의 군주인 경공이, 問政 - 정치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孔子 對曰하고 그 위로 君君, 臣臣, 父父, 子子.

www.artnstudy.com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수많은 해석들이 있죠. 일단은 근대의 학자들이 이제 그걸, 君君臣臣父父子子를 군주는 군주이고, 신하는 신하이고 어버이는 어버이이고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인간관계, 절대적 가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봉건적 규범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君君, 임금은 임금, 臣臣, 신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 명분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건 이 문장, 여기까지만 보면 얘기가 되요. 솔직히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君君이란 두 구절만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여기서 앞의 君과 뒤의 君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공이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공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거기 한번 보시죠. 公曰, 견공이 이렇게 말했다. 善哉라, 훌륭한 말씀입니다. 信如君不君 臣不臣, 군불군 나오죠.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정말, 信如, 정말 그와 같다면 만약 참으로, 뭐 이정도의 뜻이니까 이 대목 설명할 때면 빼놓고 봐도 됩니다. 雖有粟 吾得而食諸. 만약 정말로 君不君, 君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실마리는 君不君에 있습니다. 不 자가 들어갔거든요. 不 자는 용언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군주가 군주가 아니고 이렇게는 번역이 안 됩니다.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不君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군주답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不亦君子乎,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래야지, 또한 군자가 아닌가 하면 틀린겁니다, 사실은. 不亦君子乎의 결과는 사실 같죠.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해도 역시 뭐 결과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不君은 다르죠. 임금답지 못하다고 할 것인가, 임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 그건 다르다 이거예요. 임금이 임금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어버이가 어버이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한들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吾得而食諸,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윗대목입니다. 일단은 君不君 臣不臣이라고 不 자가 붙은 것을 봐서 이 대목은 용언을 부정하는 말로 不이 쓰인 것이니까 군주는 군주이고 신하는 신하이고,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군주는 군주이고 신하는 신하이고'가 아니라 이 앞의 君 자는 군주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명칭이고, 그리고 君 자는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뭡니까. 군주는 군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게 훌륭한 정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건데, 이것만 갖고 다 이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보통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한다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군주는 군주 역할을, 신하는 신하 역할을, 어버이는 어버이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회는 잘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가의 비판을 받게 되요. 법가에서는 뭐라냐면 유가가 자꾸 仁義를 주장하지만 남보고 仁義 하라 할 수 없다. 뭐 그렇잖아요. 자기가 수양을 통해서 仁과 義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는 있겠지만 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버이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실천할 수 있고, 義라고 하는 게

www.artnstudy.com

사회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군신관계나 부모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이 훌륭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남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유가의 仁義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주가 군주다워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군주 아닌 사람이 그걸 요구해봤자 성립될 리가 없고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와 자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군주와 신하, 그리고 어버이와 자식, 이 내용을 한 사람의 행위로 봐야 합니다. 군주가 되어서는, 남의 군주가 되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군주의 가치를 실천해야 되고. 신하가 되어서는 신하의 가치를 실천해야 하고, 어버이가 되어서는,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자식의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공자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경공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景公한테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나 어버이들이나 자식들이 다 잘하면 당신 임금 노릇이나 제대로 할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간혹 효도선양대회, 이런 거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보면 효도받아야 될 분들만 맨날 모셔놓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효도해야 할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게 아니라 효도받아야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효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죠. 이 대화가 공허하다고 하면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임금하고 제나라 임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금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이죠. 공자는 임금하고, 제나라 임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당신이 임금이 되었으면 이 입장이 되어야하고, 당신이 신하가 되었으면 이 입장이 되어야하고, 신하가 된 입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신하가 된 입장이 있어요. 주나라의 신하 아닙니까. 제나라 경공이지만요, 주나라 신하입니다. 그리고 제나라는 제후국이니까요. 제후국의 임금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천하라고 하는, 중국의 천하의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신하이죠, 제후이면서. 주나라가 더 큰 범위를 갖고 있지만요. 이게 공자시대입니다. 공자시대를 넘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맹자이구요.

그러니까 임금이 되어서는 뭘 해야 하는가. 대학에 의하면, 仁,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요, 정치적 개념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인입니다. 맹자 역시, 친친이인민(親親而仁民) 이건 뭐 말씀드린 적이 있죠. 親親은, 어버이를 어버이로 사랑하는 것이고, 仁民은 백성들을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愛物은 동물, 식물, 제물 등등 따위를 제물로써 아끼는 것입니다. 애왕할 때 왕이에요. 애왕할 때 애는 동물이나 이런 것을 아끼는 것이고, 왕은 '玉'자거든요. '임금 왕'자를 줄여서 표기하는 것입니다만, 구슬 따위를 좋아하는 것, 물건을 좋아하는 것, 노리개를 아끼는 것, 뭐 이런 뜻입니다.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는.

다 비슷한 마음이지만 차이가 있지요. 개를 사랑하는 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나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하면, 동물보호론자들이 간혹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죠.

www.artnstudy.com

그래서 그 논리의 허점이 종종 보이는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해 볼 때 동물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이제 문제가 뭔지 드러나죠.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동물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져 놓고, 물어 와라 이런 식으로 아낀다든지 사랑한다든지 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등을 이제 인정하는 게 유가의 입장이고 맹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진 않아요. 老吾老, 우리 어버이를 노오로, 나왔죠 앞에, 우리 어버이를 吾老,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토대로 삼아서, 以及人之老 다른 사람의 어버이에게 及, 미쳐가는 겁니다. 미쳐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확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이 되어서는 仁에 머무르고 인이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매긴다.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인신이 되어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敬'. 우리가 생각하기에 '臣下'면 '忠'이게 나올 텐데 忠이 아니고 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요. 忠이나 敬이나 같습니다.

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忠'이라고 하면 국가에 충성하고, 외부에 있는 다른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이고 이런 걸 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본래 '忠'이라는 글자는 그 대상이 '자기'예요. '忠於己'입니다. 나에게 진실한 것이에요, 충은. 그리고 '서'라고 하면 이제, '서'가 아니라 '臣'이죠 이제. '忠臣'그러죠 충신. '신'은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어인.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충과 신이 같은 것입니다. 충과 신이 다를 게 없고 다만 대상이 자기가 되면 충이고 다른 사람이 되면 신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진실한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면 그게 '충신'이 되는 겁니다. '충'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최초의 충의 대상에는 '기'다, '나'다, 이거에요. 나에게 진실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사실, 경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적 긴장상태인데, 긴장하고 있으면서 한 곳에 집중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충과 같습니다. 그래서 敬과 忠이 같이 붙어있는 대목이 논어에 여러 차례 나와요. 어쨌든 신하가 되어서는 敬에 머문다.

그 다음에, 爲人父하면, 남의 어버이가 되어서는, 뭐하느냐. '慈'는 그냥 자식을 자식으로 사랑한다 할 때 한문으로 쓰면 '자기 자' 이거든요. 이 '자'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자'와 같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이요. 다만, 이 '자'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게 '자'가 되겠습니다. 남의 어버이가 되어서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자식된 처지에 놓여서는 孝. 효는 말씀드렸죠. 늙은 아버지를 자식이 대신 봉양하는 것, 부양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효에 머문다,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대학'이라는 책에 나와요.

지난 시간부터 '대학'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經1장과 傳10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경'은 대학의 작자에 대해서 이설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www.artnstudy.com

전통사회에서는 논어는 공자의 말씀이고, 맹자는 맹자의 말씀이고, 논어에는 공자의 언행, 말씀과 행동이 기록되어있고 맹자에는 맹자의 말씀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고, '중용'은 자사가 저술한 것이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저술한 것이고, '대학'은 정자가 지었다 되어있어요. 중용이 자사의 저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를, 예기의 다른 편이라든지 고문헌에서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발굴된 성과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중용의 작자가 자사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정자의 저술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끼워맞춘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대학의 경은 1장밖에 없어요. 1장밖에 없고, 그 경을 해설한 게 전인데, 전은 10개장이 있습니다. 경1장은 공자의 말씀을 정자가 기억했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하신 말씀을 정자가 풀이했고 그리고 풀이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대학에 보면, 시경과 서경 등등 유가 학자들이 늘 익혔던 고문헌이 인용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3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 2교시 君君臣臣父父子子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일단 1-1해서 正名論과 命論論의 사이, 이렇게 되어있죠. 공자는 일단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한겁니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요. 임금은 임금다워야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한다고 보면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齊景公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니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자로가 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그리고, 밑에 맹자의 경우에도 잠시 접어두고요. 맨 아래에 대학 전3장의 경우 있죠. 거기에 보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하고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詩云 邦畿千里 惟民所止, 이것은 이제 상송현조(商頌 玄鳥)편에 나오는 것이고, 詩云 緡蠻黃鳥 止于丘隅, 그 다음에 詩云하고 나오죠. 穆穆文王, 이 부분은 이제 爲人君 止於仁 하시고 나오죠. 文王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보죠. 시운, 시경에 이렇게 말했다. 목목문왕이여, 아 거룩하신 문왕이여. 오, 감탄사예요. 緝, 끊임없이. 熙, 빛내서, 밝혀서. 敬, 경에 가서 止, 머무셨다. 爲人君 止於仁, 군주가 되어서는 止於仁하시고 인에 가서 머무셨고 爲人臣 止於敬,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止於敬하시고, 경에 가서 止, 머무셨고 爲人子 止於孝,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는 止於孝하시고, 효에 가서 머무셨고 爲人父 止於慈, 남의 어버이가 되어서는 止於慈하시고, 慈에서 머무셨고, 여기는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與國人交 止於信, 국인들과 나라 사람들과 交, 교제할 때에는 止於信, 신에 가서 머무셨다. 공자는 일단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 네 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 사람 일이라고 맞추면 爲人君 止於仁, 爲人臣 止於敬, 爲人子 止於孝,爲人父 止於慈,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바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가 예를 들면, 父

www.artnstudy.com

子慈孝, 어버이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어버이를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는 건데, 어버이가 사랑하는 건 '慈'고 자식이 사랑하는 건 '孝'고 이런 것입니다. 兄友弟敬,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友'는 우의, 우애 이런 뜻입니다. '愛'는 본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위에 손톱이고 아래는 손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경계가 있는데, 이 마음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왔다갔다 마음을 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兄友할 때 우가 우애의 뜻이에요.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또 '제', 아우는 형을 공경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父父子子兄兄弟弟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弟' 자가 나중에 '심 방'이 붙어서 悌 자가 되요. 弟弟하면 아우가 아우 노릇한다, 공경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君君이라고 할 때 군주가 되어서는 군주 노릇을 제대로 하고, 그 군주가 제대로 한다는 것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하가 되어서는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고, 어버이가 되어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이 되어서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효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요.

사회를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하는 관계망 속으로 엮고, 그런 관계망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와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죠. 다만 이제 구조주의와 관련된 방식으로 맹자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나중의 문제로 나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적 관점 자체가 현대 프랑스 철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식으로 사회를 이해 할 필요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점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해석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그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 먼저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 점이 있고, 어쨌든, 고전의 여러 가지 다른 고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논어에 나오는 내용과 대학에 나오는 내용, 예기를 비롯한, 대학도 예기의 한 편이잖아요, 이런 고문에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正名論'이라고 하는 것이, 正名論 또는 名分論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군주는 군주이고, 신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공자의 正名論, 名分論 같은 얘기입니다. 正名論이라고 할 때 名이 명분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名分을 바로 세운다는 뜻인데, 이 바로 正名이라는 말이 논어의 이 부분에 나오지만, 또 名分과 관련된 말이 여기에 나오지만, 正名이라는 말도 논어에 나오죠. 그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공자가 얘기한 것인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正名論 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 내용은 1-1 정명론과 혁명론의 사이에 되어있고, 첫 번째 문장은 齊景公 問政於孔子, 제나라 견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은 것. 그것이고, 두 번째는 子路曰 하고 나오죠. 子路曰부터 보겠습니다. 자로가 이렇게 여쭸다. 이제 자로는 중유입니다. 성이 중이고, 이름이 유예요. 그런데 이제 자로가 바로 위나라에 가서 벼슬을 합니다. 위나라는 골치 아픈 나라예요. 위나라의 영공(靈公)이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남자(南子)예요. 발음은 남자이지만, 실제로는 여자인거죠. 근데 이 '南子'라는 여자가 음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얼마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한데, 어쨌든 이 南子가 음행이 있었다고 해서 영공의 태자, 괴외(蕢聵)가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인 남

www.artnstudy.com

자가 음행이 있다 보고 수치스럽게 여겨요. 전해지는 기록에는 괴외가 송나라에 갔더니만 송나라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위나라 임금 아내인 南子에게 음행이 있다는, 공주하고 놀아났다느니, 그런 노래를 하는 걸 보고 괴외가 화가 나서 자기 어머니인 남자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공이 당연히 괴외를 쫓아내죠.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연공이 죽고 나니까 후계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이 괴의의 아들인 첩(輒)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괴의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 輒이, 괴외를 거부합니다. 자기 아버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子路는 바로 이 첩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위나라 임금인 첩(輒)이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예요. 衛君 待子而爲政위군이 대자에 위정하리니, 위나라 임금 출공(出公) 첩이, 待子而爲政, 선생님, 선생님은 子자입니다. 선생님을 기다려서 爲政,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데 子將奚先, 자, 선생께서 장차, 앞으로, 奚先,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위나라에 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子曰,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必也正名乎, 반드시 正名부터 할 것이다. 명분부터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명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명분을 바로 잡을 것이다. 지금 명분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子路曰, 자로가 이렇게 말했다. 有是哉, 글쎄, 이런 점이 있으니까, 有是哉는 한심하다는 표현이에요. 글쎄, 참 우리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어, 子之迂也 奚其正, 선생님, 迂, 사정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迂는 '멀 우'자예요. 현실과 거리가 멀다, 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 현실을 그렇게 모르시는군요. 奚其正이시리, 奚, 어찌 그 딴 걸 바로잡으려 하십니까. 명분 따위 바로잡아서 뭐 합니까. 지금 개판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된 거여요 지금. 그 괴외를 두고 얘기하자면, 괴외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한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니까, 아들, 괴외의 아들인 첩이 또 거부하고 그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둘 다, 영공이 또 임금답지 못했고, 君君臣臣父父子子 중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로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딴 거 바로잡아 뭐 합니까 그러니까 子曰,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野哉 由也여, 이거 굉장한 욕이거든요, 野, 야비하구나. '哉'자는 이제 감탄사, 종결사 겸 감탄사이구요. 야비하구나 由, 유는 이제 중유, 자로의 이름이죠. 자로 너, 참 야비하다, 사람이. 君子於其所不知, 소부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蓋闕如也, 闕如, 그냥 본 걸로 해둔다, 빼놓는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왜 이게 중요하냐, 名不正 則言不順, 명분이 不正, 바로 서지 아니하면, 言不順,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 백성들이 손과 발을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名分이라고 할 때 '名'자는 명이라는 글자가 되기도 해요. 글자가 제대로 쓰여지지 아니하면 말이 글자, 문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니까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글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고, 그 글자가 사실 이를테면, 君君臣臣父父子子 같은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임금이 임금으로서 명령을 내리는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해요. 그러면, 명분이 바로 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명령이 제대로

www.artnstudy.com

전달될 리가 없죠.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言不順 則事不成하고, 말이 불순, 순조롭게 전달되지 않으면, 事不成,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금이 하는 일이면 대체로 국가대사가 아니겠어요.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事不成 則禮樂不興하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禮樂不興, 예악이 일어나지 않고, 원래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시작과 끝을, 일의 시작을 삼가기 위해서 예가 있는 것이고, 일의 마침, 그 결과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樂이 있는 겁니다. 樂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거죠. 함께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음악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和'죠. 이것은 다 마찬가지죠. 和라고 하는 게 하모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교향악단을 필하모니라고 하죠. 필이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뜻이고 하모니가 이제, 和이니까, 調和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禮라고 하는 것이 처음을 삼가기 위해서, 행동을 삼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樂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의 아름다움을 和, 함께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일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악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禮樂不興, 예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則刑罰不中하고, 형벌이 不中, 적중하지 않는다. 예악이라고 하는 게 일의 시작과 결과가 좋았을 때, 그 공을 치하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라면, 형벌은 공과를 따져서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거이죠. 예악이 제대로, 공을 따지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를 따지는 일인들 제대로 되겠습니다. 刑罰不中입니다. 형벌이 제대로 적중하지 못하고, 刑罰不中, 형벌이 적중되지 않으면 則民無所措手足, 원래 이게 원문에는 刑罰不中이면, 형벌들이 적중하지 않으면, 꼭 맞게 시행되지 않으면 백성들을 응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措手足해서 원래는 '착'자로 되어있어요. '착'인데 여기서는 '조'로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표기된 것처럼 '조'자로 봐요, '둘 조'자로. 그래서 '措手足'하면 措, 놀릴 곳, 수족을 둘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형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는 게 형벌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모래무지나 쏘가리를 잡아서 매운탕을 해 먹었다 가정해요. 그런데 그게 천연기념물이나 처벌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천연기념물이니까 처벌된다는 걸 알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 그걸, 쏘가리를 먹었다든지 했을 때 처벌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마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있는 상태라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명분에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공자의 뜻은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걸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제 공자입장이고요, 공자 스타일의 正名論과 名分論이고, 이것도 우리가 보통은 기존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로 正名論과 名分論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명분론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데서, 원래의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맹자의 경우를 한 번 보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직접적인 논의 제기는 공자에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임금이 임금답게 해야 하는 것을 끝까지 논의하는 거고요. 맹자의 경우를 한 번 보시죠, 그 밑에요. 맹자의 경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齊宣王問卿, 제나라 선왕이 問卿, 경에 대해서 물었다. 맹자왈,王何卿

www.artnstudy.com

之問也, 왕께서는 何卿, 어떤 경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왕왈, 卿不同乎, 경이 같지 않습니까. 경이면 경이지 뭔 차이가 있습니까. 曰,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합니다. 不同, 같지 않습니다. 有貴戚之卿 有異姓之卿, 貴戚의 경이 있고, 異姓의 경이 있습니다. 귀척은 이제 제나라와 同姓인, 성이 같은, 이를테면 제나라 왕과 같은 왕족입니다. 왕족으로서 높은 벼슬하는 사람,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異姓之卿, 성이 다른 사람, 높은 벼슬을 하지만 왕위 계승권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曰, 請問貴戚之卿, 귀척의 경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君有大過則諫, 군주에게 大過 - 큰 과실이, 有 - 있으면, 諫 - 말리고, 反覆之而不聽 則易位, 반복해서 간했는데도 不聽, 듣지 않으면, 易位, 군주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맹자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王勃然變乎色, 왕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얼굴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王勿異也하소서, 왕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물으시길래 제가 곧이곧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 라고 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이죠. 군주와 신하의 관계, 君君臣臣을 강조하는 것은 걸리는 게 별로 없죠. 실제로 맹자 식으로 해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가 봉건사회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군주가 시원찮으면 바꾸는 거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신하가 시원찮으면 군주가 신하를 해고시켜버리거나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父父子子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시원찮고, 자식이 시원찮다고 바꿔버릴 것입니까. 그게 안되죠. 자식이 시원찮으면 잘 가르쳐야지, 바꾸면 됩니까. 바꾸면 안 되죠. 자식이 더 못났거나 하면 더 사랑하고 아끼고 해줘야죠. 마찬가지죠, 어버이의 관계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더욱 공자의 이야기가 한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이지, 네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공자가 "어버이가 어버이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꿔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君臣과 父子간의 관계를 두고 주자나 전통유학자들이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君臣義合이라고 합니다. 군신과의 관계는 의리로서 만난다는 겁니다. '義'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맞으면 서로 만나서 군신관계가 되는 것이고, 의리가 맞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義'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란 말이에요. 사회적 가치가 같으면 군주가 신하가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의 생각에 동조해서 천하를 잘 다스린다, 거기에 부합되면 군주가 되는 거고, 군신관계가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義合이 아니고, 天合이에요. 이건 사람의 도리가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적 이념과 상관없이 하늘이 만들어 준 관계다, 하늘이 합쳐 준 관계, 자연이 합쳐준 관계다. 그렇죠, 군주나 신하는 선택할 수 있는 관계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생기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그게 아니죠. 누가 만들어 준 것이냐면, 자연이 만들어 준 관계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이 나타나서 그걸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관계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보지 않은 겁니다, 똑같이. 부자관계에 대해서는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고, 군신관계에 대해서는 '義'에의 적합여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www.artnstudy.com